

北漢山城 및 史蹟地 踏查記

朴正根

(MBC-TV 편성부PD)

發見의 기쁨,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그것이 未知의 대륙이건, 아니면 낡은 책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장의 非常金이건.

바로 지난 6월 21일 “북한산 성지 및 사적지 답사산행”은 나에게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준 하나의 기회였다.

한국 출판인 산악회와 합동으로 갖게 된 한국산학회 주최의 이번 산행에 참가한 인원은 총 28명, 언제나 그렇듯 산으로 향하는 마음은 즐겁다. 오전 10시 30분 용암문을 향해 도선사를 출발한 일행은 북한산 장영 오른쪽에 쌓인 탑신의 잔해를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산장을 지으면서 쓰고 남은 석재를 쌓아 둔 것일까. 아니 이건 용암사 석탑이란단다. 서기 1711년 북한산성 축성시 건립됐던 용암사, 지금 그 터에는 산장이 대신 들어서 있고, 무너진 석탑 아래 용암센터에는 줄줄이 등산객이 늘어서 있다.

시끌벅적한 산장을 뒤로 하고 남서면 중턱의 바위 위에 올라서니, 발아래로 백운동 계곡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일행은 이날의 행사 책임자인 이용대 선배로부터 근처 유적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놀라운 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손회장님과 서로 나누시는 두 분의 설명이 나에게서는 모두 새로운 史實이라는 事實이다. 따지고 보면 이 땅의 한줌 흙, 구르는돌 모두 역사와 관계된 것 아닌가?

잡목숲을 헤치고 내려서니 바로 太古寺, 1341년 중흥사 부속암자로 普愚大師에 의하여 창건된 태고사는 대부분 6·25때 소실되고 대웅전만 남아 있다. 보우대사는 고려 공민왕, 禹王을 보필하던 國師로 太古는 그의 號이다. 현재 이곳의 주지승인 창암스님께서 대웅전 옆에 있는 보물 제 611호 圓證國師塔碑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다. 원증은 보우대사의 祖師名으로 李穡의 비문이 적힌 높이 2.25m, 너비 1.05m의 이 부도비는 고려 우왕 11년(1385년)에 건립되었는데, 長方型의 基臺石 1석으로 된 龜趺위에 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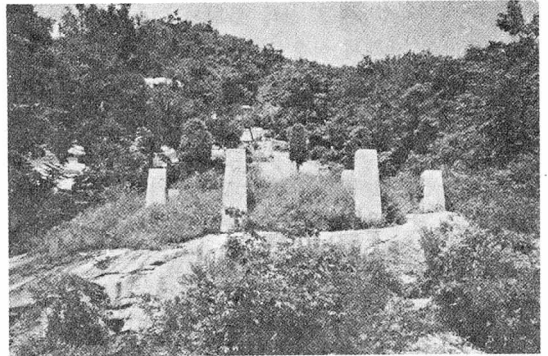
을 세우고 臺石을 덮은 형식을 이루고 있다. 누가 안으로 들어가 비문을 열심히 살펴 보노라니, 아, 이게 누구인가! 判三司事 李成柱를 비롯, 林堅味·李仁任, 廉興邦, 李穡 등 시대와 더불어 흥망을 같이했던 고려 중신들의 이름이 줄줄이 새겨져 있는게 아닌가? 判三司事는 從一品의 고려시대 三司의 최고 벼슬로 오늘날의 장관직에 해당하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7년전의 일이다.

세월은 흐르되 역사는 살아 있다더니 바로 이걸 뜻하는 게 아닌가? 어지러웠던 麗末 鮮初의 시대상이 떠오르는 가운데 마음은 흥분을 가눌 길 없었다. 그때 일행인 김호근씨가 이상한 글씨가 쓰여진 기와 조각을 주워 창암스님께 물어보니 바로 梵語란다. 와! 하는 함성속에 일행의 눈은 주위에 흩어져 있는 기와조각들로 향한다. 그리고 이 太古寺는 북한산 연구에 필수적인 性能이 지은 목판본의 『北漢誌』 원전을 소장하고 있는데, 성능은 북한산성 축성후·산성안에 주둔했던 승병 약 400여명을 총괄했던 승군사령관(8도총섭)이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북한지』는 연구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보관 중이라 직접 원전을 감상할 기회는 없었다.

기다리던 점심은 태고사 뒤 부도탑 옆에서 들었다. 정신없이 김밥을 챙기다 문득 고개를 드니 나란히 선 부도탑 사이로 6월의 신록만큼이나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아래 노적봉의 마지막 피치를 오르는 클라이머들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에 있는 부도탑은 좀 오래된 것이 보우대사의 사리를 모신 탑이고, 다른 하나는 太古宗을 처음 연 法雲대사의 것이라 한다.

널리 공개되지 않은 덕분에 아직도 고즈넉한 山寺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太古寺, 그 밑으로 내려서니 백운동 계곡 오른쪽에 길이 100여m, 높이 5m의 2단 축대로 이루어진 너른 터가 보였다. 이름하여 중흥사 터, 북한산 계곡에 이만한 자리가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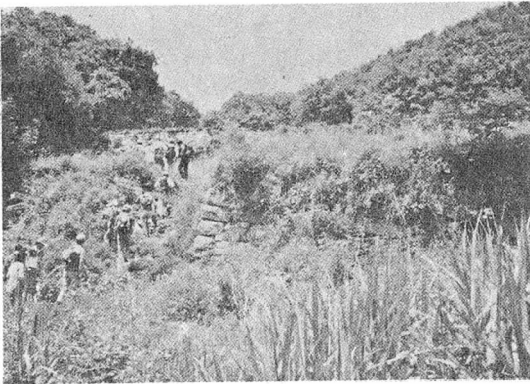
가? 연꽃처럼 에워싼 북한산 연봉의 울창한 수림 사이로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고려 태조 王建 당시, 그러니까 서기 918년 무인년에 창건된 증흥사는 麗末에는 보우대사가 그 뜻을 펼치던 대가람으로, 조선시대에는 사찰 본연의 임무이외에 황실의 약재 재배지로서, 또한 산성의 주둔군 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15년 8월, 그만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제는 그 흔한 탑하나 없이 이름모를



△ 백운동 계곡의 비석골

꽃들과 무성한 갈대에 뒤덮인 채 세월에 묻혀 가고 있는 증흥사 터, 다만 무너진 계단 한쪽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 옆으로 툭 튀어나온 왕방울 눈을 가진 높이 2m 정도의 동물 조각상에서 그때의 패기와 힘찬 기상을 엿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이밖에도 북한산의 숨은 비경인 백운동 계곡에는 산성 주둔 수비군이나 당시 벼슬아치들의 서예,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비석골, 전망대였던 산영루 등 들르지 못한 곳이 증흥동 石城이었다.



△웅암사터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 무열왕 8년 서기 661년
에 고구려와 전투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북한
지』 또한 북한산성 수축 당시 이곳에는 둘레 9417척
의 성벽과 석문, 문자취가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날의 특별 손님은 바로 ‘서울의 鎭山’이
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국
산서회의 활동을 촬영나온 국립영화제작소 팀이
었다. 평소 산과 접촉이 없으면 산을 오르 내리는 것
만도 힘들터인데, 좋은 앵글을 찾아 쉴 사이없이 촬
영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나름대로의 투철
한 직업의식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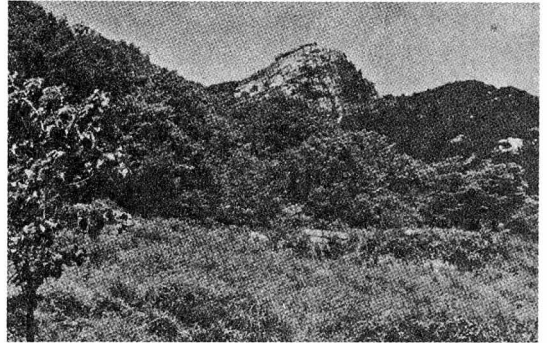
이제 방향을 바꿔 상류로 향한다. 태고사위 계곡
왼쪽 역사풀 자욱한 곳이 행궁터, 숙종 36년 1712년
에 120여칸 규모로 지은 이곳은 국왕이 피난시 역대
왕들이 옥새와 북한산 문고, 금은옥책 등을 보관했다
고 한다.

대성문 쪽으로 오르는 계곡은 그 아늑한 품이 기막
히는 데이트 코스였다. 晩秋가 되면 다시 이곳을 찾
으리라. 때아닌 상상에 발걸음은 벌써 대성문이다.
여기서도 일행은 성문의 크기를 쟀다. 성벽의 높이
를 쟀다 하며 촬영을 위해 한껏 포즈를 취했다. 그리
고 동장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이곳 동장대는 전투시의 지휘소에 해당하는 동,
남, 북, 3장대 중의 하나로 북한산성 축성시 숙종대
왕이 친히 올라 축성작업을 살피셨던 곳이라 한다.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누각이었다는데
지금은 예외없이 주춧돌과 돌기둥만이 등산로와 숲
사이에 덩굴고 있다.

그런데 북한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북한산에 오
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적이 바
로 북한산성이다. 『북한지』에 의하면 북한산성은 조
선조 숙종35년(서기 1711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총
길이 7620보(21리 60보, 약 8km), 높이 6m, 두께
3m의 규모로 축성되었는데, 구파발쪽의 大西門을
정문으로 문주봉, 대남문, 만경대, 백운대에서 원효
봉, 다시 서대문에 이르는 능선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을 이루는 북한산
연봉의 천연 암장 사이 사이를 막아 이루어진 천연의
요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의 13개 성문과 3장대
를 지키기 위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소속
수병 약 1000여명, 성내에 위치한 11사2암자의 승병
400명 포함 1400여명의 병사가 주둔하였다는데, 유
감스럽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한번도 이곳에서는
전투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산성이 전망좋은 등

산로가 되어 조상들이 피, 땀으로 쌓은 이 성 위를
수없는 후손들이 밟고 지나가건만 그걸 아는 등산객
은 과연 몇이나 되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
이다. 무지와 무관심으로 훼손되어가는 북한산의 유
적들.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더불어 그 보존책이 시
급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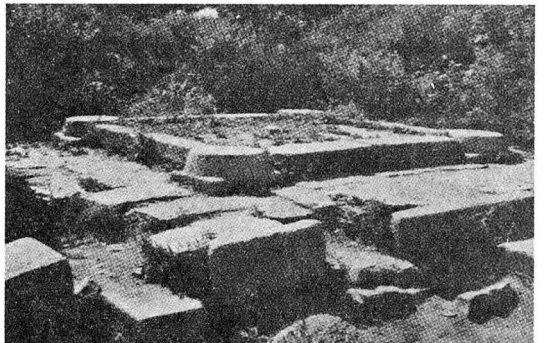
· 중흥사터

전공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산’이라고 대답
하던 대학 산악부 시절-산 짐승 털같이 하듯 계절
마다 등산화를 바꿔 신으며 오르 내렸던 이 산. 그런
데 이 산의 그 넉넉한 품안에 이처럼 아무리 파내어
도 그치지 않을 역사의 보고가 간직되어 있을 줄이
야!

북한산은 차라리 역사 그 자체였다.

산을 오르는 것은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이 오르는 그 산 뿐만 아니라 그 산이
지닌 내면의 가치, 즉 산의 문화, 산의 품격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하산길에는 허창성 부회장님 구옥에서 시원한 맥
주로 갈증을 식혔다. 산행 뒤에는 이처럼 가슴 뿌듯
한 피로와 선후배 간 나눔의 자리가 있어 즐겁다.情



· 동장대터

談을 안주삼아 마주치는 맥주잔 너머로 멀리 황혼에 우뚝 선 인수봉이 흰머리에 童顏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북한산 성지 및 사적지 답사 코스: 도선사-캠프장-좌측능선-용암봉-북한산장-태고사-보우국사 부도탑(점심)-중흥사-산영루-행궁터-대성문-동장대-우이동

*백운동 계곡은 軍주둔 지역이라 사전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음.

◎참고문헌

- 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비고

- 북한지-성능
- 택리지-이중환
- 태고지리-태고사
-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 서울 전통문화-서울시
- 북한산의 지리적 고찰-이승녕
- 북한산-손경석

* 시간상 자료 열람을 다 하지 못한 관계로, 이용대 선배님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크게 힘입었음.

※ 編輯者註: 이 글은 한국산서회지인 山書2號에 게재된 것인데 北漢山의 文化遺産을 널리알려 그 保存을 위해 筆者의 도움을 받아 실는다.

